

유럽은 지금 '난민'과의 전쟁중

유럽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밀려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난민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난민들의 주요 이동 통로에 있는 중부 유럽의 헝가리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방벽을 세웠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독일에선 반 이민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혼란을 치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독일 내 난민 수용을 확대하고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등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난민 문제 해결에 앞장 서고 있어 주목된다.

메르켈 독일총리, 시리아 난민 수용... "EU 공동대응을"

독일 반이민 시위 속 사회민주당에 폭탄 테러 위협도

헝가리, 국경에 '난민장벽'...마케도니아는 비상사태 선포

◇메르켈 총리 '술선수범' = 25일(현지시간) 독일 언론 등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최근 극우세력의 난민 반대 폭력시위가 발생했던 드레스덴 근처 하이데나우 지역을 26일 직접 방문해 망명 신청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앞서 24일에는 내전으로 신음하고 있는 시리아 출신 난민들이 독일에서 머물기를 원할 경우 이를 모두 수용한다는 발표로 다른 EU 국가들을 놀라게 했다.

EU에 들어온 모든 난민은 최초에 받을 들어놓은 국가에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더블린 규약까지 어기며 '통근' 결단을 한 것이다.

메르켈이 이처럼 난민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부치는 것은 난민으로 인한 유럽 각국의 갈등이 궁극적으로 유럽을 통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

일 반 이민 시위 빈발 속 테러 위협도 = 난민 유입이 늘면서 독일 내 반(反) 이민정서도 함께 커졌다는 것이다. 독일 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독일에서 난민 신청자 수용시설에 대한 공격 행위는 모두 202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한 198건보다 많았다.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이민자를 증오하는 '네오나치' 성향의 극우파가 다시 활개를 치는 데 대해 메르켈 총리는 "협조적으로 수처스롭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한편, 난민 수용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독일 대연정 소속인 사회민주당(SPD)에 대해 폭탄테러 위협이 가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SPD의 베를린 중앙당사 빌브란트 하우스는 25일 폭탄테러설로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폭탄은 발견되지 않아 일단 단순 위협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헝가리 방벽 설치에도 난민 억류 최대 기록 = 헝가리 정부는 그리스-마케도니아-세르비아를 거쳐 들어오려는 주로 중동 출신의 이주민을 막고자 세르비아 국경 175km 중 110km에 방벽을 세웠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경찰은 올해 들어 하루 최대인 2093명의 난민을 억류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25일 보도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헝가리에 도착한 이주민은 모두 14만명으로 이미 작년 한 해 수준(4만3000명)을 3배 이상 초과한 상태다. 이들은 며칠간 머물며 숨을 고르고 나서 헝가리 이웃국가인 오스트리아를 거쳐 독일이나 북유럽 등지로 떠난다.

◇마케도니아는 '비상사태' 선포 = 발칸반도의 내륙국 마케도니아는 최근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들을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부 국경에 병력을 투입해 난민 유입에 대응하고 있다.

남부 도시 게브겔리아에는 최루탄과 장갑차로 무장한 진압경찰이 배치돼 난민 통행을 차단했다.

마케도니아는 중동-아프리카 난민들이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로 넘어가는 주요 통로다. 마케도니아에서 북쪽 세르비아를 통해 유럽연합(EU) 소속인 헝가리까지 가면 쉽게 국경을 넘어 서유럽으로 향할 수 있다. /연합뉴스



난민 수용 확대를 밝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5일(현지시간) 외국인 이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뒤스부르크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미 공화 대선후보 쟁 부시 '앵커 베이비' 발언 파장

〈아시아인 원정출산〉

한인사회 "모욕적인 발언" 공식 사과 요구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인 쟁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앵커 베이비'(anchor baby·원정출산) 발언과 관련해 미국 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인사회를 비롯, 아시아계 출신 연방 의원들이 즉각 쟁 부시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등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일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의 하나인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회장 임소정)는 25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인 쟁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앵커 베이비'(anchor baby·원정출산) 발언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아시아계 이민자 자녀들을 향해 '앵커 베이비'라고 한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부시 후보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아시아인 커뮤니티를 향해 사과 성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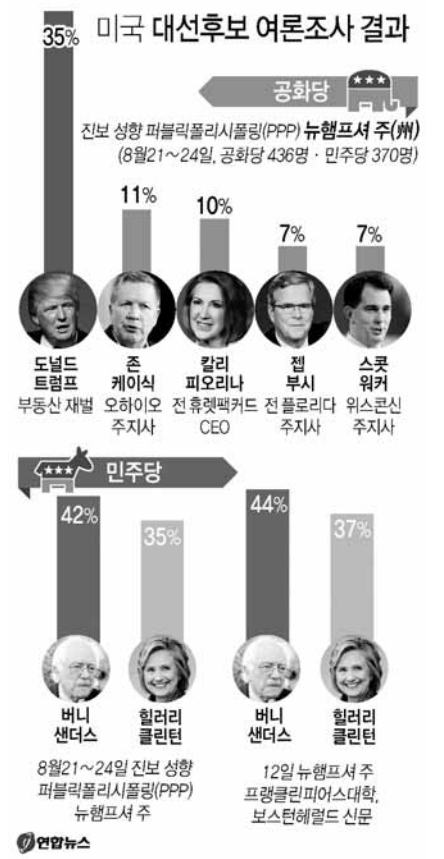
재미 한인의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한인

2세들이 중심이 돼 지난 2011년 결성한 조직인 미주한인협의회(CKA·회장 샘 윤)도 논평을 내고 "부시 후보의 발언은 모욕적이고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어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내용의 이민개혁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시 후보는 지난 24일 텍사스주 멕시코 국경에서 기자들을 만나 "텍사스주와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미국 국적을 주는 제도를 아시아인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앵커 베이비'는 중남미인들보다 출생 국적이라는 고귀한 개념을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아시아인들이 더 관계가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앵커 베이비는 미등록 이주민이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 국적을 얻은 아기를 뜻하는 것으로, 바다에 닻(anchor)을 내리듯 부모가 아이를 미국인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정착을 돕는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중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 초청

51개국 대표중 일본·필리핀만 거부

중국 정부가 내달 3일 개최하는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총 51개국 대표의 참석을 요청한 가운데 이중 일본과 필리핀 등 2개국만 거부했다고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요청받은 국가 중 일본과 필리핀을 제외한 나머지 49개국은 정상이나 정부 대표, 고위관료 등을 공식적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기구의 경우 11곳을 초청한 가

운데 10개 기구의 수장들이 참석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불참이 확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물론 주중대사를 포함한 현직 정부 관계자를 전혀 파견하지 않기로 해 열병식을 사실상 '보이콧'했다.

1995년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의 주인공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참석하지만 이는 '전적 정제요인'인 민간인 자격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이처럼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

을 사실상 보이콧하는 것은 중국의 이번 행보가 사실상 자국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치열한 갈등을 빚는 필리핀도 열병식 등 기념행사에 현직 정부 대표를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필리핀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 등에 맞서 미국, 일본 등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

중국 정부는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용환 북한 노동당 비서를 비롯한 30개국 지도자, 정부대표 19명 등 49개국 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10개 국제기구 수장의 명단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중국 '항일영웅열사' 명단 한국 독립투사들도 일부 포함

중국이 항일전쟁 승리 70주년(9월3일)을 앞두고 발표한 '항일영웅열사' 명단에 일제시기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전에 참가했던 우리 독립투사들도 일부 포함됐다.

중국이 국무원 비준을 거쳐 지난 25일 발표한 '저명한 항일영웅열사 600명' 명단에는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일제와 처절하게 싸웠던 박한중(朴翰宗), 한호(韓浩) 이민환(李敏煥), 마덕산(馬德山) 등이 포함됐다.

동북항일혁명군 제1군 참모장이었던 박한중은 경상도 태생으로, 1928년 지린(吉林)성으로 이주한 뒤 본격적인 항일투쟁에 가담했다. 1935년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25살의 나이로 전사했다.

중국은 이들을 모두 '조선족'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은 앞서 지난해 9월에도 허형식(許亨植), 이홍광(李紅光), 이학복(李學福) 등 한국에서 건너간 항일투사들이 포함된 '저명한 항일영웅열사 300인'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동북항일혁명군 제1군 참모장이었던 박한중은 경상도 태생으로, 1928년 지린(吉林)성으로 이주한 뒤 본격적인 항일투쟁에 가담했다. 1935년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25살의 나이로 전사했다.

중국은 이들을 모두 '조선족'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은 앞서 지난해 9월에도 허형식(許亨植), 이홍광(李紅光), 이학복(李學福) 등 한국에서 건너간 항일투사들이 포함된 '저명한 항일영웅열사 300인'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던 이민환은 함경북도 출신으로, 1930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항일전에 투신해 1936년 7월 마천령 전투에서 26살의 나이로 전사했다.

마덕산은 평안북도 출신인 부모님을 따라 1927년 헤이룽장(黑龍江)성으로 이주했다. 1936년 동북항일연군 군정학교 간부학교에서 공부한 뒤 항일전에 가담했고 1938년 3월 23살의 나이로 전사했다.

중국은 이들을 모두 '조선족'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은 앞서 지난해 9월에도 허형식(許亨植), 이홍광(李紅光), 이학복(李學福) 등 한국에서 건너간 항일투사들이 포함된 '저명한 항일영웅열사 300인'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년째 810평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 대전프리모 남가발

대산프리모남가발